

고통에서 빠져나와 발랄에너지 뽐내자



5·18 연극 '푸르른 날에'
3년째 무대 올린 고선웅씨
시대의 아픔 비극이지만
눈물도 웃음으로 승화하길

〈3〉웃음을 입혀라

5·18 광주 민중항쟁 이야기를 다룬 연극 '푸르른 날에'. 무대 위에서 총칼에 맞아 쓰러지고 지독한 물 고문을 겪는 젊은 청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관객석에서는 순간순간 웃음과 폭소가 터져 나온다. 이 무슨 이해 못할 상황인가. 그러나 이를 두고 비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무겁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이야기 '푸르른 날에'는 5·18이라는 아픈 상처를 웃음으로 치유해주는 '별량하게 과장된 통속극'이다. 정경진 작가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연속하고 어둡게만 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시대의 아픔을 이겨낸 청년들의 에너지와 눈물, 웃음을 담아냈다.

"비극을 딛고 희망을 노래하자"며 5·18을 새롭게 바라본 연극의 중심에는 연출가 고선웅(45)이 있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이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유족들과 시민들은 아직도 광주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고통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스스로의 고통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 당사자들이나 유족들이 가해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 불행한 일입니다."

"푸르른 날에"는 5·18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피어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사랑이야기를 더 하면서 발랄한 에너지를 뽐내낸다. 어둡고 무거운 서사와 통속적인 멜로 드라마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역이용해 명랑하게 풀어냈다.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닌 세대를 초월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처음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전 단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비극적 소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고 다뤘을 보이면 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대면하기 싫고 추억하기 싫은 것을 바라보게끔 인도해 가고 객관적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했지요. 그러면서도 5·18이라



연출가 고선웅씨가 5·18을 새롭게 해석한 연극 '푸르른 날에'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수원=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는 역사에 대한 진정한 몰입도 필요했습니다. 5·18을 웃음으로 표현하는 데 대한 유족들의 반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반응은 좋았다. 초연 당시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연출상, 2011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선정되는 등 2011년 대한민국 주요 연극상을 휩쓸었다. 지난해 재공연은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무언이 고향인 부모가 경기도에서

거주할 무렵 나고 자란 그는 초등학교 6학년때 TV 뉴스를 통해 5·18 민중항쟁 소식을 접했다.

이후 84년부터 3년간 광주에서 조대부고를 다녔기에 5·18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슬픈 역사였으며 지금까지도 이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이 안타까웠다.

"또 그 얘기가 아닌 색다른 방식으로 연극을 풀어내면서 본질을 쳐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는 고 연출가. 그는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조하고 고통만을 보이려고 한다면 듣는 이들도 지쳐가고 감정도 줄어들 뿐"이라며 "연극을 통해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일 시작된 연극 '푸르른 날에'는 오는 6월 2일까지 서울 남산 예술센터에서 공연된다.

수원=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5분 해질 19시 24분 달돋이 04시 18분 달질 17시 50분

초여름 날씨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높겠으니 유의하세요.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0/27°C
목포	맑음	11/22°C
여수	맑음	13/20°C
나주	맑음	6/26°C
완도	맑음	11/24°C
구례	맑음	7/27°C
강진	맑음	9/24°C
해남	맑음	9/25°C
장흥	맑음	8/24°C
순천	맑음	7/25°C
영광	맑음	8/25°C
진도	맑음	9/23°C
전주	맑음	11/27°C
군산	맑음	9/24°C
남원	맑음	7/27°C
옥산도	맑음	12/19°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지역	종양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0.5~1.5m	0.5~1.5m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1.5~2.5m	0.5~1.5m	0.5~1.5m

경고 높음 보통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3/21	15/18	13/23	12/24	11/26	12/24

조손 가족·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과태료 할인

앞으로는 조손 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과태료를 깎아주는 반면 자동차 영치 대상 과태료는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사는 조손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합뉴스

보훈처는 직원들 '입단속'만

33주년 기념식 관련 "모르겠다" 일관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새로운 추모곡을 선정하고 33주년 기념식 때 제창 여부를 놓고 직원들의 '입단속'에 나서서 등 함구령이 내려졌다.

특히 광주지방보훈청은 보훈처가 기념식을 앞둔 현장을 둘러보고 식순과 준비상황,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조차 "모르겠다"며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 통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일 기념사업과 직원 등을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로 보내 기념식 참석자들의 이동로 및 깃색대·무대·합창단 공연장소 등을 둘러보고 미비점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보훈청과 국립묘지 관리사무소측은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통제하는데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최근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식과 관련,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 15일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충희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 내년부터 7개 학과 폐지

교무위, 강도높은 구조조정안 의결...9개 학과는 정원감축

조선대학교가 개교 이래 최초로 83개 전체 학과를 76개로 줄이고, 9개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에 들어간다.

또한 평가결과 2년 연속 하위 10% 안에 든 학과는 폐지하기로 하는 강도높은 개혁을 지속하기로 했다.

7일 조선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유사전공 통합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 15개 학과를 8개 학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의결했다.

구조조정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과는 생명공학과와 해양생명공학과, 법학과와 글로벌법학과, 기계설계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명공학과와 응용화학소재공학과 등이다.

금속재료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 전자기공학과와 제어계측로봇공학과, 독어교육과와 독일어과도 각각 합쳐진다.

또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고 독립학부로 운영해온 4개 학과를 단과대학 소속으로 바꿨다.

정원감축은 최근 3년(2010~2012) 동안 교육원가, 재학생 유지율, 취업률, 연구업적 등을 평가해 계열별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정원이 감축되는 학과는 9개 학과로 이들 학과에서 63명이 줄어든다.

조선대는 이번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매년 학과 평가를 벌여 하위 10% 이내 학과는 정원의 10%

를 감축한다.

특히 학과 평가 결과 두 차례 하위 10% 이내에 든 학과는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구조개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안은 오는 14일 교수평의회와 27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조선대 관계자는 "학문단위 구조개혁을 통해 오는 2020년에 국내 15위권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면서 "경영합리화 및 수익창출 다각화를 통해 세입 대비 등록금 비중을 50%로 낮춰 재정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률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눈길끄는 전남대 교직원 복지정책

"출산땀 축하금 100만원 줍니다"

전남대 교직원은 앞으로 출산하면 축하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방문 총장은 최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직원들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는 교육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선정(상위 10% 이내)해 출산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올해 논문실적이 높

은 교수들에 대해 자연공학계열 300만원·인문사회계열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강의 우수교수 20명을 선정해 1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교육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선정(상위 10% 이내)해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

한림제약이 전하는 건강뉴스 '코진' 편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씻 코

똥 코

코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비염·코막힘·안면비강염, 알레르기, 비염합병증의 과용으로 인한 장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극/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용해판티/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은가죽이 상해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직형 허가의 일관적 제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엔클 비액

코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비염·코막힘/코가려움·안면비강염, 알레르기, 비염합병증의 과용으로 인한 장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극/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용해판티/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은가죽이 상해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직형 허가의 일관적 제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를 시원하게 시원하게!
트인 비액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